5/24/15

설교 제목: 성령 강림

전하는 이: 김순배 전도사

말씀: 사도행전 2:1-4

(행 2: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절관주] 행 4:31

(행 2: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행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지 50 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셔서 40 일 동안 제자들과 세상에 나타나 보이시다가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지 10 일 만에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던 사도들을 포함한 120 여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역사를 통털어 가장 위대한 사건 셋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며,

셋째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 중에는 좀 의아해 하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앞의 두 사건은 바로 수긍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번째에 이르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네,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땅에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사건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사건 중에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무슨 능력'이나 '기' 정도로 생각하여 뭔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거나 방언이 터지거나 병이 고쳐져야 성령이 임한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성령을 능력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성령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신비로와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예수의 영, 주의 영은 오순절 사건이 있기 훨씬 이전 태초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창세기 1: 1-2)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다만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선지자나 제사장, 왕들에게 주로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요엘서 2:28)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런데 바로 이 예언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 예언 말씀대로 만민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행 2: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영어로 The Day of Pentecost 라고 하는데 이날이 무슨 날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할 중요한 7 대 절기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3 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절기마다 각각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시기 위해서, 즉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요 1: 29)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고 소개합니다. 어린양은 유월절 어린양을 말합니다.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한 어린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 일후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로 초실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 구약시대 7대절기의 상징

시대적 구분	관 련 사 건	시대적 구분	관 련 사 건
과거,현재의 일	• 유월절 :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함 • 무교절 : 신앙인의 생활을 상징함 • 초실절 : 부활을 상징함 • 오순절 : 성령 강림을 상징함	미래의 일	• 나팔절 : 휴거와 재림을 상징함 • 속죄일 : 환란을 상징함 • 초막절 : 천년왕국을 상징함

◈ 구약시대 7대절기의 개요

명칭	성 구	때	목 적	예언적(영적) 의미
유월절(逾越節) (페사흐)	출12:43-49 레23:5 민28:16 신16:1-8	종교력의 첫째 달인 니산 (아빕)월의 14일 저녁 [유월:'넘어 지나가다(Pass Over)'의 뜻]	1.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구출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 2.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넘어 지나갔다'는 것.즉 이스라엘백성의 장자를 살려 주셨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 (출12:27)	1.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유월절의 어린양이다.(요1:29; 고전5:7; 벧전1:18,19) 2.유월절은 성만찬의 기초이다. (마26:17-30; 막14:12-25; 눅22:1-20) 3.유월절은 여린양의 혼인 잔치를 예시한다.(눅22:16-18; 계19:9)
무교절(無酵節) (마초트)	출12:15-20 출13:3-10 레23:6-8 민28:17-25 신16:3-8	니산(아빕)월 15일에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무교:효소(누룩,이스트)를 넣지않고 만든 맛 없는 빵(떡)을 먹었던 고생을 뜻함]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 (출12:39), 무교병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을 상징함.	1.무교병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요6:30-59;고전11:24) 2.무교병은 함교회의 상징이다 (고전5:7,8)
초실절(初實節) 첫 이삭 바치는 날(비쿠림)	레23:9-14	유월절 기간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초실:처음 거두어 들인 열매 또는 곡식]	보리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기 위한 것	1.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육적인 부활의 상징이다. (고전15:20-23) 2.첫 열매는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고전15:20-23)
칠칠절(七七節) 오순절(五旬節) (샤부오트)	레23:15-22 민28:26-31 신16:9-12	첫 이삭 바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기 위한 것 (추수감사절)[7×7=49일 다음날 즉 50일째 되는 날.旬:열흘]	오순절 때에 성령의 부어 주심이 교회에 일어났다 (행2장)
신년절(新年節) 나팔절 (로쉬하샤나)	레23:23-25 민10:10 민29:1-6	안식의 달인 제7월(티쉬리)의 첫째 날	안식의 달인 일곱 번째 달을 맞아 봉헌	신약 성경에서는 나팔을 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마24:31; 고전15:52; 살전4:16)
속죄일(贖罪日) (욤키푸림)	레16장 레23:26-32 민29:7-11	제7월10일 (티쉬리)	제사장과 백성 및 회막의 죄를 해마다 속하기 위한 것	속죄일의 궁극적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된다(히9장), 이것은 구약의 어떤 다른 상징 보다도 더욱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장막절(帳幕節) 초막절(草幕節) 수장절(收藏節) (수코드)	레23:33-43 민29:12-38 신16:13-17	제7월(티쉬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되었고, 여덟째 날은안식의 날로 절기의 절정을 이룸	1.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 할 때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 2.토지의 소산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마칠 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레23:39)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에 대한 번영과 평화를 예시한다.
				- 이 내용은 [톰슨 II 주석성경]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 옵니다.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같이 모여 있던 120 문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행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자 그들 모두는 다른 언어 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배운 것 없는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너희들이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면서 한꺼번에 3000 명, 5000 명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행 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행 2: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행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행 2: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행 2: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 1: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분리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과 함께 죽었음을, 다시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음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반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개인적이고 극히 사적인 경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경우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물 세례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성령 세례는 반드시 어떤 환상, 바람과 불의 체험, 방언 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행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매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자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받는 성령 세례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성령 충만, 이 두가지를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이 없다면, 결혼식은 올리고 사랑은 하지 않아 불행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선물로 성령 충만함을 얻습니다.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2)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행 5:32)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3)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행 10:44)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눅: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120 문도들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사람?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 성령이 임하면 소통이 됩니다.

(행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 문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다른 지방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다른 지방 언어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 일이 발생한데는 연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1 장에 나오는 바벨의 탑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쓰는 기술이 생기자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높은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내려고 합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창 11: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 11: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창 11: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창 1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 사건이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로 막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 흩어졌던 역사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 회복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에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어가 다른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다른 언어로 말하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통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한 언어를 쓰고 있을지라도 서로 소통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순서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가 소통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추어 조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래로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특별한 무슨 경험이 없을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회개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할 때 우리를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초대 교회 사도들과 문도들 같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령 충만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